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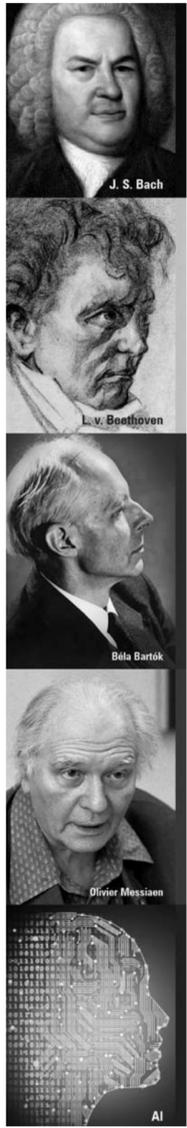
바흐부터 AI까지... 그들의 음악을 만나다

개관 5주년 아시아문화전당 25일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제10회 안성현 국제 현대음악제 24일~12월9일까지 나주문예회관 김규식·박흥우·조진희 등 출연



김규식과 무누스 앙상블.



‘엄마야 누나야’를 만든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나주 안성현 국제 현대음악제가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나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음악제는 나주시의 후원과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의 주최로 열린다.

올해 안성현 탄생 100주년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전환시대 Bach...그리고, AI’다. 바로크 시대의 바흐부터 고전시대의 베토벤, 현대음악의 바르토크와 메시앙, 그리고 미래의 전환점이 될 AI(EvoM)까지의 흐름을 이번 현대음악제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음악제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가 만든 인공지능(AI) 작곡가 이봄(EvoM)의 곡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임수연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김규식, 무누스앙상블, 바리톤 박흥우, 독창회, 리코디스트 조진희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먼저, 24일 오후 7시 안성현음악홀에서는 ‘임수연 피아노와 전자음향’ 무대가 펼쳐진다. 메시앙의 ‘아기예수의 입맞춤’, 하비의 ‘메시앙의 무덤’, 조들로프스키의 ‘검은 시리즈’와 ‘하얀시리즈’를 들려준다.

임 씨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 연세대 음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임 씨는 현재 연세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일신문화재단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다음 공연은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의 ‘Astor Piazzolla’s Tango night’(27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아졸라의 곡을 들려준다. ‘오블리비온(망각)’을 시작으로 ‘탱고의 역사’ 중 ‘CAFE1930’, ‘아디오스 노니노’, ‘퀵템을 위한 콘체르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무대에 올린다. 무누스앙상블은 첼리스트 김규식이 2009년 창단한 단



박흥우



임수연

체로, 첼로 김규식과 아코디언 정태호, 기타 박윤우, 더블 베이스 조용우, 피아노 오은철 등으로 구성됐다. 클래식, 재즈, 탱고,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리코더 연주자이자 제작자인 조진희 초청연주회는 12월1일 오후 7시 남파고택에서 열린다. 현재 수제리코더를 제작해 일본, 유럽 등에서 순회전시를 진행중인 조 씨는 바흐의 ‘안나 막달레나 바흐를 위한 노트’ 중 ‘미뉴에트’, 윤이상의 ‘중국의 그림’, 모차르트의 ‘플루트 듀엣’을 들려준다.

바리톤 박흥우 독창회(12월 3일 오후 7시 안성현음악홀)에서는 베토벤과 안성현, 한상은 등의 곡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베토벤의 연가곡집 ‘멀리있는 연인에게’에 수록된 ‘언덕 위에 앉아서’, ‘산은 푸르려’, ‘가볍게 춤추는 작은 새’ 등을 들려준다. 이어 안성현의 ‘엄마야 누나야’, ‘얇달의 꿈’, ‘부용산’을 노래한다. 아울러 한상은이 나해철의 시에 곡을 붙인 ‘안성현의 노래’와 갤럭시의 ‘시에 의한 6개의 노래’도 들려준다.

이번 음악제의 마지막 무대는 무지크바움(이화)유스 오케스트라와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PS)이 장식한다. 12월9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신정문의 지휘로 요한스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려주며, AI 작곡가 이봄은 ‘AI와 첫만남’을 선사한다. 이밖에 비제의 ‘투우사의 노래’, 김선철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 ‘운명’, ‘동창이 밝았느냐’, ‘진도 씻김굿’ 중 ‘제석거리’, 바르토크 ‘루마니안 포크댄스’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코로나 19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문의 010-6331-6834, 010-6422-199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올해로 개관 5주년(11월 25일)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 방향과 콘텐츠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ACC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25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다.

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인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강신경 교수(전남대 문화전대대학원)가 ‘문화전당과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신의 교수(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가 ‘문화전당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향’ 주제로 발제한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김기곤 실장(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박진현 제작국장(광주일보), 장용호 교수(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가 ACC와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김은영 교수(추계예술대 영상비즈니스과), 이한호 대표(㈜주스컴퍼니)가 ACC 콘텐츠 중장기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신곡 ‘빛의 아시아’(작곡가 박유철)를 공개한다.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시 댓글창을 통해 질문과 제안을 남길 수 있으며 좋은 의견으로 채택되면 문화전당 문화상품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601-407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책으로 만나는 성평등’ 이야기꽃도서관 인문학 특강

‘그림책으로 만나는 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 특강이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은 오는 24일부터 12월4일까지 그림책을 매개로 한 대상별 맞춤 성평등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영·유아, 청소년, 학부모 등 지역주민 1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꽃도서관과 선문중학교에서 진행한다.

영유아 성평등 그림책 큐레이션 ‘딱따구리’ 유지는 대표, 장윤경 호남대 간호학과 교수, 김정아·김종민·김수진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전문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24일에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열리며, 26일에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나부터 시작해요’가 진행된다.

이어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협력해 제작한 그림책 ‘다녀왔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찾아가는 청소년 성평등 교육’(30일)을 비롯해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경제 존중 교육’(12월1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12월3일), ‘유아 성평등, 나다움을 이야기해요’(12월4일) 등이 열린다.

신청은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꽃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960-681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살인 용의자가 된 천재 피아니스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동하 ‘피아노가 울리면’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예(2012) 출신 김동하 작가가 ‘미스터리 스텔라 피아노가 울리면’(고즈닉이엔티)을 펴냈다.

소설은 왼손 경련에 시달리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은퇴를 결심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 주요 모티프다. 천재 피아니스트 백동우는 꿈의 무대 불리는데 카네기홀에 입성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연주를 망치고 만다. 은퇴를 고민하는 그의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 연주를 그만두면 사람이 죽는다는 협박을 한다.

실상가상 백동우는 아내가 실종되고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서면서 백동우는 연쇄살인의 전말과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하게 된다.

소설은 신선한 소재와 충격적인 결말, 쫓고 쫓기는 역동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작가는 위기에 빠진 피아니스트를 주인공 삼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독자들 앞에 풀어놓는다. 마치 살인마와 함께 클래식 공연을 듣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소설의 원래 제목은 ‘에피타지’(전식)이었다. 신중 연쇄살인마에게 주인공 피아니스트는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돕기 위해 에피타지를 내놓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소설은 스텔라의 주인공으로 적합한 해보이지 않는 피아니스트가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작가는 전작 ‘운석사냥꾼’에서 운석이 떨어진 사골 마을에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차원 높은 스텔라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주인공이 범인의 함정에

빠져 꼼짝도 못 했듯이 독자는 작가의 정교한 함정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함평 출신 김동하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천스토리창작과정을 통해 ‘운석사냥꾼’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국제레지던시의 2021년 입주작가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위원은 2명이며, 입주기간은 2021년 1년간이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 광주지역 출신 작가로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하는 오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술품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2021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최종 선발된 2명에게는 스튜디오 제공, 오픈스튜디오 개최, 문화예술기타 탐방, 창작지원비 등이 제공된다. 최종 입주자 발표는 오는 12월 9일이다.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로는 제1기(2017-2018년) 윤세영·이정기, 제2기(2019년) 양나화·조은솔, 그리고 현재 제3기(2020년) 김자아·임원형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법성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광세탁소
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법무사 김은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범초하루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서암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준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태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대연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